

## 남북교류시대, 북한의 체육과 문화

장용훈 / 연합뉴스 남북관계부 기자

**평**양의 봉화예술극장에서 운동권 가요 '마른잎 다시 살아나'를 부르는 운동권 출신 가수 안치환, 남한 최고의 가드 강동희의 패스를 받아 덩크 샷을 하는 리명훈. 오랫동안 보기 힘들었던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모습들이 지난 연말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면서 세밑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훈훈했다.

정부가 정경 분리와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냉전 구조 해체 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남북간 사회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천년을 앞둔 1999년은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의 해'라고 이름 붙일 만하다.

지난해 9월 평양실내체육관 건설 착공식에 맞춰 현대남녀농구팀은 평양에서 북한과 통일농구경기대회를 가졌고, 12월에는 북한의 우리와 화오리팀이 서울에서 답례 경기를 가졌다. 또 8월에는 민주노총이 선발한 축구 선수단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직총선발선수단과 통일 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가졌다.

이어 12월에는 남한 인기 가수들의 북한 공연이 쏟아졌다. 코래컴과 SBS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동생인 로저 클린턴과 함께

2000년 평화친선통일음악제를 가졌고, SN21 엔터프라이즈와 MBC는 민족통일음악제를 평양의 봉화예술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들 공연은 모두 녹화돼 남한에서 방영되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 북한의 정책 변화와 의도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는 1998년 4월 인민 문화궁전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제시했다.

김 총비서가 제시한 다섯 가지 방침은 ① 민족 자주 원칙의 견지, ②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단결, ③ 북남 관계 개선, ④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 세력에 대한 반대 투쟁, ⑤ 온민족이 서로 적극 대화하고 연대·연합 강화 등이다. 특히, 서한에서 김 총비서는 "우리는 남조선 집권 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 장성들도 민족 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 민족 대단결의 기치 밑에 단합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물론 과거에도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해오던 구태의연한 주장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민족 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면 단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적 실리 추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현대가 북한에 매달 일정 금액을 관광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민족적 사업’으로 시작되고, 올해 SN21엔터프라이즈가 6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고 공연을 개최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의지를 반증한다. 또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에 100만 달러,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추진하는 통일 염원 금강산 국제 랠리에 100만 달러, 계명프로덕션이 추진하던 평양교예단 서울 공연에 50만 달러 등, 북측이 교류 사업을 통해 꾸준히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남북 문화 교류가 북측의 경제적 이익 챙기기로부터 촉발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북한 당국의 방침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 교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남북간 경제 및 사회 문화 교류 확대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교류 사업의 주관 부서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인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994년 창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태평화위는 당초 일본·미국 등 대외 활동에 나서 북한의 대외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반민반관 기구로 김용순 대남 담당 비서가 위원장을, 대남통인 전금철과 일본통인 송호경, 서구 국가 사정에 밝은 이종혁과 김형우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전선부 소속 조직이다. 이 기구는 북한의 대외 정책을 대남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일 3국 공조 속에서 미일 관계 개선은 당연히 대남 정책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남 기구 성격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아태평화위는 남한 기업과 단체들의 대북 사업을 총괄하면서 통일전선전술이라는 대전제와의 상충 여부를 판단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남한과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하면서도 체제 보위라는 큰 전제 속에서 한정적으로 문을 열어나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남북간 협력 가능성

남북간 문화 및 체육 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최근 들어 ‘제2천리마 대진군운동’ 등을 내세우면서 북한이 경제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삼성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북 경제 협력 사업과 더불어 공연 예술·체육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작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997년 10월 김정일 최고사령관을 당 총비서에 추대하고 1998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면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정치적으로 정상화 과정에 진입했다. 이어 올해에는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토지 정리 사업, 양어장 건설, 중소형 발전소 건설 등 경제 회복 운동에 주력했고, 최근 들어서는 북한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생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남한에서 경제 협력과 교류의 대가로 지원되는 자금이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연과 체육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를 가속시켜가면서 경제적 실익 챙기기를 꾸준히 추구할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체육과 문화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체제 선전을 극대화하기에 안성마춤이라는 점에서 대미·대일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은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평화친선통일음악제의 보도를 위해 국제적인 뉴스 방송인 CNN은 북한에 들어가서 모든 활동 내용을 방송했다. 이 보도는 주요 방송 시간대에 전세계에 방송됐고 '테러 지원국' '전체주의 국가'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북한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

히, 평화친선음악제에 참가한 로저 클린턴의 활동 내용은 북한의 언론 보도를 통해 신속히 알려짐으로써 음악 공연을 통해 북한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지적이다.

셋째, 문화 예술과 체육이라는 부분이 모두 북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분야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선전과 선동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도구는 공연 예술이다. 김정일 총비서가 선전 선동 부문에서 통치술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 예술은 지도자의 관심과 배려 속에 성장을 거듭했고 남한의 공연 예술에 비해 못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 체육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해 스포츠 스타를 만들어내고 국제 대회 참가를 통해 이를 구현해나가듯, 북한도 이러한 경로를 밟아왔다. 유도의 계순희, 마라톤의 정성욱, 농구의 리명훈 등이 그 사례이다. 따라서 문화 예술과 체육 교류는 증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문화라는 매개체가 이질적 사상 전파의 침병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 문화 교류는 속도 조절을 해나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사회주의 사상가인 그람치가 이야기하듯, 한 체제의 이행에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로서의 대중 문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과의 예술 및 체육 교류를 통해 서구 사상과 자유주의가 침투되는 것을 염두에 두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봄물 터지듯 시작된 교류의 물줄기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 남북 체육·문화 교류의 역사

남북한 문화 교류는 과거 당국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오던 데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을 행사 주체로 이뤄지게 된다. 남북간 최초의 공연 교류는 1985년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시 남측의 연예인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갖고 북측의 예술단이 남측에서 공연을 한 것이다. 이후 1989년에도 제2차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과 함께 공연단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산 가족의 방문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이어 1990년 10월에는 황병기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등 17 명이 평양을 방문해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석, 동평양대극장 등에서 가야금 연주·시조창 등 전통 예술을 공연했으며, 이어 12월에는 북한 성동춘 단장을 비롯해 평양민족음악단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 '송년통일음악회'에 참석, 옥류금 연주 등 북한이 보존하고 있는 전통 예술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후 전반적인 남북 관계의 냉각

속에 남북 문화 교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단지 제3국에서 남북한 예술인이 합동 공연을 하는 형태만 명맥을 이어갔다.

1990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남북영화제에 북한은 8 명의 영화인을 파견, 남북한 영화의 시사회를 가졌으며, 1991년 5월 일본의 쓰루가에서 열린 환동해국제예술제에서는 남한중앙국립관현악단 52 명과 평양음악무용단 60 명이 합동 공연을 했다. 또 1991년 8 월에는 사할린에서 남북 합동으로 '남북통일 전통무용문화풍속제'가 개최돼 진도북춤·농악 등이 공연됐으며, 1992년에는 사할린 동포를 위로하기 위한 통일예술제에 남한의 대중 가수와 북한의 전통예술단이 참가해 고향 잃은 동포의 설움을 달래기도 했다.

남북한간 체육 교류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1990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기간중 남북한 체육 장관은 회담을 갖고 과거 경평축구를 재현하는 남북 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0월 9~13일 정동성 당시 체육부 장관 등 남한 선수 및 방문단 76 명은 북한을 방문해 평양5·1경기장에서, 이어 10월 21~25일 북한 김유순 체육지도위원장 등 북한 선수 및 방문단은 잠실주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가졌다. 평양 경기에서는 북한이 2 대 1로, 서울 경기에서는 남한이 1 대 0으로 각각 승리를 거뒀다.

통일축구대회로 고조된 남북한 체육 교류

열기는 1990년 11월에서부터 1991년 2월까지 네 차례 남북체육회담으로 이어졌고, 회담에서 남북은 일본 지바현에서 열리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리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한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남북한 동수로 구성된 탁구단일팀 56명은 일본에서 합동을 가진 후 탁구 대회에 나서 우승을 거뒀다. 또 남북한 총 62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축구단일팀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평가전을 가진 이후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 강화 훈련을 가진 후 본 대회에 출전,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탁구단일팀이 일본에서 헤어지면서 보여준 리분희 선수와 현정화 선수의 눈물어린 이별 장면은 체육 교류로 확인된 한민족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줬다.

## 북한의 문화 예술

남북한 문화 교류에서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공연 예술이다. 남한과 교류가 가능한 상품성있는 부분은 역시 전자 음악을 하고 있는 예술 단체들이다. 왕재산경음악단과 보천보전자악단이 북한 전자음악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1983년 7월 결성된 북한 최초의 경음악단인 왕재산경음악단은 16명의 악단과 6명의 가수, 16명의 무용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악단은 당정 고위 간부들의 모임이나 외국인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남북고위급회담차 방북한 남측대표단을 위해 두 차례 공연하기도 했다. 6명의 전속 가수는 장윤희, 김광숙, 럽청, 황숙경, 오정윤, 최광호 등으로 이 가운데 특히 럽청은 보천보전자악단 소속 스타인 전해영 못지 않게 인기가 높으며, 1996년 10월 북한 예술인 최고의 영예인 인민배우가 됐다. 최고의 남자 가수로 손꼽히는 최광호는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 8부에 출연, 베사메무초를 멋지게 불러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다.

북한 유일의 전자 악단인 보천보전자악단은 만수대예술단에서 떨어져 나와 1985년 9월 결성됐으나, 일반 대중에게 선을 보인 것은 90년대 들어서이며 1991년 9~10월에는 일본 공연도 가졌다. 이 악단은 신디사이저 등 전자 악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쟁가리 등을 배합해 연주하고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은 어릴 때부터 음악적으로 특출한 재능을 보여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은 20대의 젊은 연주가와 성악가들로 조직됐으며, 가수는 김광숙, 전해영, 리분희, 리경숙, 조금화 등 5명이다.

'맑고 은구슬 같은 목청의 고음 가수'로 유명한 김광숙은 1968년생으로 평양청년예술단 성악 배우로 활동하다 1986년 보천보전자악단에 입단했다. 그녀는 1988년 2월 20세의 나이로 공훈배우, 1992년 인민배우가

되었으며, 남편은 이 악단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전권이다.

‘휘파람’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전해영은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출신으로 평양대동문인민학교 시절 전국학생예술축전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예술적 소질이 뛰어났으며, 1983년 11살의 나이로 일본을 방문한 이후 그해 8월 ‘김일성소년영예상’을 받았다. 1988년 보천보전자악단에 들어왔으며 1992년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고, 민요나 가요·외국 노래를 재치있게 불러 ‘낭만과 희열, 감동과 추억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 ‘반갑습니다’로 유명한 공훈배우 리경숙은 1970년생으로 1988년 평안남도 성악과에 입학한 후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아 보천보전자악단에 입단했다.

전자 악단과 더불어 공연예술단체에서 가장 선두 주자는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인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수대예술단이다. 1946년에 설립된 평양가무단을 모체로 1969년 현재의 만수대예술단으로 개편됐으며, 남성중창조, 여성중창조, 여성기악중주조, 무용조, 배합관현악조 등으로 편성돼 있다. 이른바 민족 악기에 양악기를 배합시킨 배합관현악은 만수대예술단이 창조해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은 만수대예술단의 창작 공연 활동을 높은 사상 예술성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모

범이 된다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교류가 가능한 북한의 문화 분야는 이번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 막간을 이용해 많은 관중의 탄성을 자아낸 교예이다. 특히, 1952년 국립교예단으로 출발해 7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의 지원 아래 독보적 위치에 올라선 평양교예단은 80년대 이후에는 해외 공연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여러 국제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북한은 평양교예단이 1997년 6월까지 1천여 개의 종목을 창작했으며 130여 개국에서 공연했다고 주장했다. 평양교예단의 서울 공연은 지난해 계명프로덕션이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공연 예술과 함께 영화를 통한 남북간의 교류도 염두에 둘 만하다. 그러나 북한의 남한내 상영은 교류가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남북한간의 교류로서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SN21엔터프라이즈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영화 공동 제작은 수익성과 함께 의의를 가진다. 최근 남한내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엑스트라가 많이 동원되는 영화 제작이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합작으로 영화를 만들어 기술적으로는 남한의 우월적 위치를, 인원 동원에서는 북한의 이점을 살린다면 우수한 영화 제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북한의 체육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 이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북한은 1996년 미국 애틀랜타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그 규모를 조금씩 확대해나가고 있다.

체육에 대한 김정일 총비서의 관심 표명을 근간으로 정권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북한 스스로가 자신들이 더 이상 국제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성원임을 선전하는 데 스포츠를 매개체로 활용하려는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한 해 동안 북한 체육계의 국제 대회 참가 규모는 최근년간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적 또한 괄목할 정도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계 따르면 북한은 20여 차례 이상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하여 70여 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했다. 북한은 방송을 통해 100 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평양에서 개최된 대회까지 아우른 숫자로 보인다.

특히, 올해 북한 체육계는 여자 선수들의 선전이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단체 경기보다는 개인 종목 위주의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제7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에서 우승해 북한 전역을 열기 속에 빠뜨린 여자 마라톤 우승자 정성옥 선수를 비롯해,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여자 52kg급에

서 계순희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13회 세계여자역도선수권대회 58kg급 용상 부문에서는 이성희 선수가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구기 종목에서는 작년 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0회 킹스컵국제축구대회에 모란봉청년축구팀이 참가해 준우승을 거뒀고, 5월에는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2부 리그에 참가, 우승을 일궈내 1부 리그로 승격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또 전통적으로 북한이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 축구에서는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해 3위에 올랐다. 7년만에 부활된 평양 국제탁구초청경기에서는 몽골, 이란 등 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금 5, 은 6, 동 9 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 대회 참가와 더불어 체육 경기 외적인 부문에 있어서도 몇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우선 체육 부문의 조직에 있어서 체육 관련 단체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기존 체육성을 내각체육지도위원회로 개편했으며, 근로 단체 체육 사업 부문 일꾼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체육 활동의 대중화를 강조했다.

또 9월에는 각급 체육 학교에 교예체조과를 신설해 교예 체조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 체계적 훈련을 강화코자 하였으며, 현대의 지원으로 평양실내체육관 건설 착공식을

개최하고 평남 개천시체육관과 경기장을 건설했다.

한편, 북한은 2000년에도 지난해 거둔 성적에 고무돼 시드니올림픽 참가 등 각종 국제 대회에 적극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 대회 참가를 통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워나가는 등 체제 결속을 위한 다목적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또한 현대가 밝힌 것처럼 북한은 협상을 통해 교환 경기의 종목 수를 확대해나가면서 남북 체육 교류에 다소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사회구성체 차이에 기반한 정치적 불일치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정치적 사업을 통한 교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말 남북한 남녀 농구팀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환호하던 관중의 모습은 바로 한 민족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정

치적 지도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적 불일치는 문화·체육 교류를 저해하고 있다. 방한 기간 내내 조심스레 행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선수단의 모습이 이러한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피운 남북한 교류의 싹은 비로소 언 땅을 뚫고 솟아올랐고, 이 싹은 남북한의 정성스런 접근 속에 꽃을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공백을 깨고 이제 시작된 남북한 교류의 물줄기는 갑자기 급류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도도히 흐르면서 그 강폭을 넓혀갈 것”이라는 한 당국자의 말은 남북 교류의 급증은 아니겠지만 새 세기를 여는 올해에도 남북 사회 문화 교류가 꾸준히 이어질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9**

〈표〉 1999년 남북 체육 교류 현황

대회명	기간	장소	성적	비고
범아시아 권투협회 주최 권투 경기	8.22	중국 심양	북한 선수 승리	남북한 최초 프로권투 경기
남북노동자축구대회	8.12~13	평양	1차전 북한 승리	2차전 혼성
통일농구대회 (북한 주최)	9.28~29	평양	남녀 북한 승리	1차전 혼성
통일농구경기대회 (남한 주최)	12.23~24	서울	남: 북한 승리 여: 남한 승리	“